

장준하의 통일론

장준하의 생애

장준하는 1918년 장석인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평양 숭실학교를 거쳐 신성중학을 졸업했다. 1944년 1월 일본군 학도병으로 중국에 끌려가다가 같은 해 7월, 천신만고 끝에 일본군에서 탈출해 중국군에 가담했다가 광복군에 편입했으며 김준엽, 윤재현과 함께 등불 1,2호를 발간했다. 장준하는 기독교도로서의 가정적 배경, 민족해방운동 과정에서 우익전선에 참가한 경력 등을 배경으로 하여 해방공간에서 임시정부 주석의 비서, 민족청년단의 간부 등으로 활동하다가 이승만 정권이 성립된 후에는 그 관료 및 정부 산하단체 잡지편집인 등을 거쳐 사상계 발행인이 되었다.

5.16 불가론, 굴욕회담 저지투쟁, 국가원수 자격 불가론, 백만인 개헌 청원운동을 전개하며 장준하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과 정면대결을 벌여 나갔다. 1973년 민주통일당에 참여해 최고위원에 피선되고, 민주회복을 위한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며 1974년 1월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군사법정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7.4공동성명 이후부터 큰 변화를 보이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또 분단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9차레나 옥고를 치르던 장준하는 1975년 8월 17일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약사봉에서 의문의 죽음으로 한 맺힌 생을 마감했다.

장준하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¹⁾ 일부논자에서는 사상계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만, 그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한국정치사와 민족통일에 대한 재조명을 위해 장준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다.

서중석교수는 7.4남북공동성명 이후 장준하는 때때로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분단체제를 인식하는 데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가 있었으며, 민족주의자의 길이 여운형에게 좌우합작이고, 김구에게 남북대화였다면, 장준하에게는 분단체제의 극복이라고 하였다.²⁾

강만길교수는 7.4공동성명 이전에는 이승만 노선이나 박정희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7.4공동성명 이후에는 민족통일론이 크게 변화된다고 하였다.³⁾

장준하의 통일관은 7.4공동성명을 기점으로 중요한 변화를 보인다. 그는 매우 보수적인 반공주의자로 사상계에도 공산당에 대한 불신의 글을 여러번 언급했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의 번영을 가로막는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공산당과 생명을 걸고 싸우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⁴⁾라는 글을 보면 장준하에게 있어 북한민족은 같은 민족에 포함되지 않았던 듯 보인다. 이러한 그의 통일관이 바뀌게 된 계기가 바로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이다.

지난 7월 4일 남북한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8월말과 9월초에는 적십자회담을 통해 갈라졌던 동포가 27년만에 오고 갔다. 민족적 양심에 살려는 사람의 지상과제가 분단된 민족의 통일이라고 할 때 어떻게 이 사실을 엄청난 감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⁵⁾

1) 장준하선생 20주기 추모간행위원회, <<광복 50년과 장준하>>, 나남출판사, 1995

2) 서중석, <분단체제 타파에 몸던진 장준하> <<비극의 현대지도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2

3) 강만길, <민주화운동과 장준하>, 장준하선생 20주기 추모간행위원회

4) 장준하,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사상계>> 1959.3.

5) 장준하, <민족주의자의 길><<씨알의 소리>> 1972.9

장준하는 4.19혁명 이후에 대두된 중립화통일론이나, 통일논의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혼돈의 극복을 위하여>와 같은 글에서 매우 수구적인 태도를 보였었다. 그런데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북에 대한 통일관이 달라진 것이다. 이것은 장준하의 민족주의관까지 변화하게 했다.

장준하는 '새로운 정세 앞에서 우리 민족이 해야 할 결단을 스스로 분명해진다. 그것은 갈라진 하나를 다시 하나의 자기로 통일하는 것이다'라며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통일은 좋은가? 그렇다. 통일이상의 지상명령은 없다. 통일로 갈라진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민족사의 전진이라면 당연히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그 속에 실현될 것이다. 공산주의는 물론 민주주의, 평등, 자유, 번영, 복지 이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통일과 대립되는 개념인 동안은 진정한 실체를 획득할 수 없다. 모든 진리, 모든 도덕, 모든 선이 통일과 대립하는 것일 때는 그것은 거짓 명분이지 진실이 아니다. 6)

라고 하면서 '민족적 양심에 살려는 사람의 지상과제가 분단된 민족의 통일'이라고 할 때 '말로 다지고 글자로 적기 전에 콧날이 시큰하고 마침내 왈각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있으랴.'라는 감상을 적었다.

이러한 통일지상의 사상이란 <장준하문집>에서 보는 한 7.4공동성명 이전인 1972년 5월에 있어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장준하의 통일론은 급격하게 전환하여 짙은 민족적 이상주의를 풍기게 됐다.

장준하는 통일에 이르는 길이 분단체제를 청산하는 길이라 했다. 분단적인 국가관, 국가관에 입각한 교육, 이념, 문화의 가치관을 통일적인 민족이념과 가치관으로 고쳐야 하며 모든 가치를 통일에 두고 분단적인 사고 행동을 반민족인 것으로 규정할 것을 제의했다.7)

장준하가 박정희에 대한 반유신투쟁을 벌이던 시기의 그에게 특기할 것은 첫째, 이 시기를 통해 그의 민족통일관 및 대북한관이 크게 변하게 되는 사실이다. 둘째, 민족통일론의 변화에는 통일의 주체로서의 민중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한일 협정 반대투쟁 과정에서 그가 폭발하는 민중 역량의 실체를 파악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준하에게 있어서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도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방해가 되는 국제적 모순이라는 차원에서 다룬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은 분단을 유엔을 통해서 합법화하여 국제적으로 보장받는 길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8)

우리 민족처럼 통일을 바라는 민족이 없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에 통일운동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시피 했다. 분단 50년 역사 또는 40여년 역사 가운데 거의 그 반 토막에 해당하는 18년 동안에 통일에 관한 논의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이것은 박정희정권 하나한테 물론 기본적인 잘못을 돌릴 수 있겠지만, 우리 민중모두가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는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런 점에서 장준하 선생이 1972년경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발표한 통일론이 박정권 18년 기간의 진정한 통일 논의이다. 장준하의 통일론은 독립운동적인 성격이 강하다.9)

6) 장준하, <민족주의자의 길> <<씨알의 소리>> 1972.9

7) 장준하, <민족통일 전략의 현단계>

8) 최영변, <장준하의 정치사상 및 자유 민권운동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5

9) 서중석, 장준하선생 20주기 기념 학술토론회

함석헌의 생애와 사상- 1970년대 민주화운동 이념과 통일인식을 중심으로

1. 함석헌의 생애

함석헌은 190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출생하였다. 1919년 평양보통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 숭실학교 교사로 있었던 함석헌의 영향으로 3.1 운동에 참가한 후 2년간 학업을 중단한다. 이후 1921년 정주 오산학교에 입학하여 1923년 졸업을 하였는데 이 때 민족주의자인 안창호, 조만식, 이승훈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¹⁾ 이후 1928년 도교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귀국하여 오산 학교 교사로 재직하게 된다.

광복 후인 1945년 11월 23일 평북자치위원회 문교부장이 되어 활동하였으나, 반공운동인 신의주 학생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소련군 사령부에 체포 50일간 구금되었고, 1946년 12월 27일에는 소련군에 의해 피검되어 1개월간 옥고 치르게 되었고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1950년 전쟁이 발발하자 겨우 목숨을 건져 부산으로 월남하였다. 그곳에서 평생의 스승인 류영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씨울 사상’을 정립하였다.²⁾ 민족적 비극이었던 6.25전쟁을 통하여 그 비참함을 깨닫게 되어 그의 ‘평화 사상’ 정립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함석헌은 1956년 <<사상계>>에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당성을 고발하는 글을 기고하였으며 1958년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를 발표하여 반독재활동을 펼쳤다. 1965년 전국적 여론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협정이 이루어지자 민중들의 많은 반발이 일어나자, 박정희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휴교령을 실시하여 이를 탄압하였다. 함석헌은 이때에도 단식 투쟁과 삭발을 하여 격렬히 저항하였으나,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행동하는 평화주의자’로서의 모습을 견지하였으며, 이 시대 문제의 마지막 책임은 ‘씨울’, 곧 민중에게 있음을 강조하였다. 1967년에는 장준하(張俊河)의 국회의원 옥중출마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기도 하는 등 군사정부와 정면으로 맞섰다.

<<사상계>>가 폐지된 후 함석헌은 1970년 <<씨울의 소리>>를 창간하여 집필진, 편집인으로 활동하였다. <<씨울의 소리>>는 1980년 독재군부에 의해 폐간되기까지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는 사상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였고 함석헌 또한 그 중심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이후 1984년 후 통일국민회의 고문, 1985년 후 쟁취국민운동본부 고문 등의 활동을 하였고 두 차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비폭력 저항과, 세계 평화주의자인 함석헌은 1989년 2월 4일 서거하였으며 2002년 건국포장이 수여되었다.

2. 함석헌의 민주주의 사상

실제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을 탄압하는 독재를 실시하였던 박정희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사상을 강조·언급하였다. 사실 함석헌의 저술들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단호한 지향이 명시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주주의를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사용하는 모습마저 보인다. ³⁾ 그렇기에 그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1) 함석헌, <<함석헌 전집>> 14. 한길사, 357-358쪽; 김용준, <<내가 본 함석헌>>, 아카넷, 82-85쪽.
2) 김용준, 193-194쪽.
3) 문지영, <1970년대 민주화운동이념 연구- 함석헌의 저항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2006.

모두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은 두 체제 모두를 뛰어넘는 제 3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 이후 자신의 활동을 ‘민주주의 투쟁’으로 규정하고 있다.⁴⁾ 그렇지만 역시 그의 저술에서 민주주의 이념과 체제 자체를 상세히 설명해 놓은 부분과, 그의 견해를 분명하게 제시한 부분을 찾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다. 다만 함석헌의 사상에서 가장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드러나는 민주주의 신념은 ‘씨을 사상’으로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며, 통치권의 근거는 민중에게 있다는 ‘主權在民’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에서 개인 각자의 개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였으며, 그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개인들의 차이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상의 인식을 기반으로 5.16 군사정변 이후의 정치가 언론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완전히 비민주주의적’이라고 평가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⁵⁾

대한민국의 성격을 규정하는 다음의 언급 역시 민주주의를 보는 함석헌의 시각을 이해하는데 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는 대한민국이 “유엔 정신의 자유와 평등과 만방 협조의 원리에 의하여 세워진 민주주의 국가”이며, 그런 만큼 자신은 “이 나라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을 나의 대적으로 알아 싸우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의 민주주의의 의미는 서구의 역사적 진행 아래 발전해 온 자유민주주의이며, 특히 2차 대전 후의 냉전 체제 아래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자유진영 국가들의 체제를 암묵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⁶⁾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인식들이 바탕이 되어, 1970년대 권력의 정당성의 부족분을 경제개발의 논리에서 찾고자 하였던 박정희 정권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기치로 세웠던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함석헌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였으며, 그의 反 정부 투쟁활동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에 입각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 자신이 서구 자유민주주의적 이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석헌은 자신이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당파성을 초월한, 보편적인 어떤 것으로 상정하고 있었던 듯 하다. 다시 말해, 그에게서 민주주의는 현실 정치체제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상적인 이념형으로 생각되어졌다.

1970년대에 들어서 특히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이후 통일 논의와 관련하여 민주주의를 넘어서자고 했던 그의 주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민족분단의 현실에 깊이 개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민족 내부의 정치를 왜곡 규정하는 미국과 소련 양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힘의 논리를 꿰뚫어보게 됨에 따라 그는 각각,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공산주의를 국가지상주의의 다른 두 얼굴에 불과한 ‘이데올로기’로 파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정치 논리에 부당함을 느껴, 양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제 3의 이념 모색을 그 방안으로 보았던 것이다.⁷⁾

다만 여기서 그가 구상한 제3의 이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 인지를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와 자율, 그리고 다양한 개성의 존중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던 그로서는 자유민주주의적 이상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거나 그와 동떨어진 어떤 이념을 대안으로

5쪽.

4) “더구나 나는 5.16 정권의 첫날부터 오늘까지 민주투쟁을 해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0세기 이 근대 사회는 민주주의 시대이며, ”민주주의 완성이 대세”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함석헌, <<함석헌 전집>>

8. 한길사, 143쪽.

5) 문지영, 7쪽.

6) 함석헌, <<함석헌 전집>> 14, 한길사, 123, 134, 145, 149, 172쪽.

7) 문지영, 9-10쪽.

생각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탈피의 대상'으로 몰아 부치는 순간에도 그가 자유민주주의 이상 자체를 부인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민주주의로부터의 탈피라는 그의 주장은 강대국들 간의 이데올로기 경쟁과 그것이 빚어낸 냉전체제로부터의 탈피라는 주장이다.

3. 함석헌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함석헌이 강조한 씨울은 바로 생각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하나라는 깊은 연대감에 서야 하며 자연과 역사에 순응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함석헌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형태는 바로 국가의 지배에서 벗어난 민중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

이렇듯 '자율성'과 '자치'에 대한 강조는 개인이나 민중, 즉 씨울이 스스로 시비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믿음과 직결되며, 이러한 근거는 개인의 양심에 대한 함석헌의 믿음이 기반이 된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 “현실의 어려운 생활을 통해 얻은 정신적 유산의 결정”으로서 “인간 사이의 믿음을 성립하게 하고 공정하며 보편타당한” 양심을 인간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⁹⁾

우선 '개인'보다 '전체'와 하나됨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다만 그에게서 '전체'는 '개인'과 대립되는 '개인적'인 개념이 아니다. 또한 개인들의 단순합 합이라는 수적인 개념도 아니다. ¹⁰⁾ 그에게서 '전체'는 오히려 '혼, 정신'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함석헌에게서는 '스스로 자각하는 근대적 인간'으로서의 개인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며, 이렇게 보았을 때 '전체'와 '하나됨'에 대한 함석헌의 강조는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이 지향했던 자유민주주의의 한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정신과 비판적 양심을 국가주의와, 전체주의적 속성에 대한 날카로운 반발로 이해하고, 전체로서의 “씨울”에 대한 그의 강조는 당시 민주화운동의 성격, 나아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지향했던 자유 민주주의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함석헌의 저항담론에서 드러나는 민주주의 전망의 두 번째 특성은 민족주의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함석헌에게 나라를 받치고 있는 민족이 바로 민족이다. 이 점에서 민족은 함석헌에게 주요한 인식의 대상이며 그것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인 작업으로 자리 잡게 된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그에게 민족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에 입각한 우리의 민족에 대한 생각을 밝혀보는 일이다. 그에게 민족은 우선 운명적인 공동체다.

그의 민족관은 하나의 민족을 역사적인 결과물로 파악하고 있으며, 어느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 의해 민족이 만들어지고 달라지는 식의 민족논의는 그에게 배척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박정희의 군부통치체제에서 주술 주술민족적 인물에 대한 성역화 논의와 농촌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이러한 인식논리는 그가 민족을 역사적인 실체로 파악했기 때문인데, 이는 민족이 사실 인위적인 실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¹¹⁾ 함석헌은 당대의 민족 통일 운동가로 이름을 날렸던 장준하, 문익환에게 수 많은 영향을 끼

8) 함석헌, <<민족의 큰 사상가- 함석헌 선생>> <씨울의 정치와 열린 나라로의 발전>>, (서울: 한길사, 2001) 48-49쪽.

9) 문지영, 12쪽.

10) 함석헌, <<함석헌 전집>> 15쪽.

11) 함석헌, <민족의 큰 사상가- 함석헌 선생> <씨울의 정치와 열린 나라로의 발전>> , 43-44쪽.

쳤으며, 통일주의자의 면모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는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세계주의, 세계공동체를 지향한다.

기본적으로 그는 “우리 민족 없이 내가 있을 수 없지만 민족이 우리에게 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동시대의 일부 민족지상주의자들로부터 자신을 구별지었으며, “민족주의는 피에 잡힌 생각”이라고 하였다. 즉 ‘민족’은 세계 공동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유지될 수 밖에 없는 개별 단위이며, 따라서 민족주의는 세계주의의 시대로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변화 내지 해체될 존재이며, 함석헌이 세계주의를 지향한다고 해서 곧 반 민족적 주의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¹²⁾ 또한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한 거부감과 세계공동체 지향성은 함석헌의 저항이념이 갖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는 그가 자율적이며 스스로 정치적 판단의 권이를 갖는 근대적 인간으로서의 ‘개인’을 상정한 상태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민족과 민중을 이해한 결과로 해석된다.

4. 함석헌의 통일인식

1971년 11월 <<씨알의 소리>>에서 <우리의 살 길>이라는 글을 통해 함석헌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미군이 남한을 점령하고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 그 세력을 위해 언제나 밖의 세력의 도움을 구한다. 그 이유는 자기에게 민중의 동의와 신념으로부터 오는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심적인 정치가는 언제나 외국세력을 끌어들이는 법이다.¹³⁾

함석헌은 민족분단의 원인을 외세로 규정하고 미국과 소련이 남한과 북한을 점령했다고 보았고, 결국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중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¹⁴⁾ 함석헌의 구체적인 통일방안은 “첫 단계는 남북이 불가침조약을 맺는 것으로 북한은 늘 평화통일을 주장해 왔지만, 남한은 ‘평화공세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평화를 말하는 자들을 용공주의자로 몰았다.”고 하여 결국 그는 “남한정부의 통일정책은 말로는 분명히 드러내지는 않지만, 통일은 무력에 의해 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다.¹⁵⁾ 이와 유사한 견해로 서중석은 “7.4공동성명이 있기까지 박정희 정권은 ‘선건설후통일’의 진부한 미명아래 어떠한 통일논의도 억압하여 ‘선건설후통일론’은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이 변형된 것.”으로 보아 “통일을 먼 훗날로 미루어 놓기만 하는, 그리하여 실제로는 통일을 논의조차 못하게 하고 통일에의 염원과 의지를 누르는 조처였다.”고 하였다.¹⁶⁾

함석헌의 통일방안의 두 번째 단계는 ‘군비축소’단계로 “쓸모없는 군비경쟁으로 민족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지 말고 ‘남북이 더 이상 군비경쟁을 하지 말자’는 합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고, 마지막 단계는 평화를 국시로 하는 단계로 보았다.¹⁷⁾ 그러면서 이 세 단계가 처음부터 ‘중립노선’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

12) 문지영, 16-17쪽.

13) 함석헌, <우리의 살 길><<씨알의 소리>>, 1971. 11.

14) 함석헌, <<함석헌 전집>> 12, 한길사, 1988, 34쪽.

15) 함석헌, <우리의 살길><<씨알의 소리>> 1971. 11; 송건호, <<민족통일을 위하여>>, 한길사, 1987, 135-138쪽.

16) 서중석, <1950년대 이후의 혁신정당론><<한국의 민족주의운동과 민중>>, 두레, 1987, 182쪽.

17) 함석헌, <<함석헌 전집>> 14, 한길사, 1988, 58-61쪽.

서 중립이란 의미는 사상적, 정책적 중립을 뜻하는데, 그것은 전쟁을 버리고 평화를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중립노선이야말로 인류를 살리는 길임을 강조하였다.¹⁸⁾ 함석헌은 “민족의 통일은 단순한 정부의 통합이 아니라 보다 높은 정부, 사회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¹⁹⁾

그리고 그는 이어 “통일에 있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독소는 국가지상주의이며, 민중 전체가 하는 ‘혁명’으로만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그는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낡은 국가지상주의에서 벗어나서 인류역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다.²⁰⁾ 결국 함석헌에게는 통일이 곧 혁명이었고, 그 혁명은 민중 전체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기성구조를 바꾸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통일이었다고 보았다.²¹⁾

이렇듯 함석헌은 분단의 원인을 미국과 소련, 즉 외세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하였고, 통일의 주체는 씨알 곧 민중이어야 하며, 민족의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중립노선’을 주장하였다. 함석헌이 이 시기에 이미 ‘중립노선’을 언급한 것은 대단히 용기를 필요로 하는 발언이었고, 이러한 함석헌의 ‘민중’주체의 통일과 ‘중립노선’은 문익환의 통일관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18) 함석헌, <우리의 살길>, <<씨알의 소리>> 1971. 11.

19) 함석헌, <<함석헌 전집>>17, 한길사, 1988, 19쪽.

20) 진영일, <함석헌의 현대사인식과 통일과><<공주교대논총>> 2000, 87쪽.

21) 서중석, <분단체제 타파에 몸던진 장준하><<역사비평>> 통권 38, 1997, 85쪽.

<북한사회 이데올로기의 변화>

1. 제1기: (1945.8.15~48.3.)제1,2차 노동당 대회기간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이념의 정착노력시기

- 1)김일성: 인민의 투쟁에 의해 과학적 사회주의의 완성이 민주주의의 핵심
- 2)실제: 민주성을 가장한 전체주의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제스처

2. 제2기(48. 4. ~61. 9.)제3,4차 노동당대회 기간

->마르크스-레닌주의 + 항일혁명전통= 북한의 정치, 행정이념

- 1)항일혁명전통을 내세운 이유: 김일성과의 정통성 위기에서 비롯한 권위의 정당화를 기하기 위함
- 2)스탈린 사망이후 집단지도체제를 둘러싸고 연안파, 국내파의 도전이 심하여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함으로써 위기 극복하고자 함

3.제3기(61. 10. ~70. 11.)노동당 제5차 총결산기간

->주체사상 구축기로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이 북한의 정치, 행정이념으로 등장

4. 제4기(70. 12.~현재)

->주체사상중심의 정치. 행정이념을 정립한 시기

- 1)80.10. 제6차 당 대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내걸고 주체사상 중심의 사회주의 건설 목표를 정치. 행정이념으로 함
- 2)마르크스 레닌주의보다는 주체사상이 북한의 유일한 체제 이념으로 자리잡음.
- 3)92. 4. 9.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98. 9. 5. 개정된 사회주의 신 헌법
=>마르크스 레닌주의 삭제, 주체사상중심의 이념을 헌법화
-이유: 국제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북한의 정치 이데올로기: 주체사상>

1.주체사상의 형성과정

- 1)55. 12. 28. 당 선전선동원대회에서 김일성이 처음으로 사용
- 2)66. 8. 12. 노동신문 사설 "자주성을 옹호하자"라고 김일성은 재차 언급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자주노선

2.주체사상의 철학적 기초

- 1)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 2)사람에게 있어서의 자주성은 생명이다.
- 3)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이다.
- 4)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주도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 5)주체사상은 모든 사람의 사고와 혁명실천에서 자기나라혁명을 중심에 놓을 것을 요구한다.
- 6)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기 때문에 인민대중은 혁명건설에 대해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하며 주인다운 태도는 자립과 창조적 입장에서 표현된다.

3.주체사상의 한계

- 1) 인민은 수령에게 절대적으로 복종을 강요받음으로써 인민은 주인이 아니라 예속적, 비주체적 존재에 불과 함.
즉, 이는 북한의 최고권력자의 주체만을 인정하고, 2천만 북한주민주체와 독자성은 말살한 채 복종과 예속만을 강조한 통치이데올로기임
- 2)내용적으로 볼 때 이론과 현실간의 괴리현상과 모순이 명백함.

4.주체사상과 수령론과 영생론

- 1)수령론: 인간과 신을 동일시하는 이단사상.
“수령은 근로인민대중의 최고 수뇌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다.”(북한의 ‘철학사전’ 내용)
- 2)혈연관계: 수령은 당과대중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는 최고영도자로서 혈연적인 관계.
- 3)수령론은 주체사상과 모순되기 때문에 “영생론”을 중심으로 하는 주체사상 등장
- 4)영생론: “개체가 죽으면 그 업적이 영원히 살고, 육신이 죽으면 정신이 영원히 살고, 개인이 죽으면 조국이 영원히 산다.”

북한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꼬리표를 달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거나, 혹은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평가하길 꺼려하는 인물들이 있다. '반공'이 만든 현실일까. 잘 만들어진 시나리오 하나가 이데올로기의 탈을 쓰고 나돌아 다니는 듯하다. 여기, 가장 열렬한 독립운동가 중 한 사람이라 불리우기도 하는 약산 김원봉도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김원봉은 1898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난다. 양반 집안에 태어나 어려서 고모부인 독립운동가 황상규에게 한학을 배웠다. 그의 호인 약산은 '산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며 황상규가 지어준 아호이다. 고모부이기보다 스승에 가까웠던 그의 영향으로 독립운동에 대해 남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일장기를 변소에 버려 밀양공립보통학교에서 퇴교당한 사건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어 편입학한 돈화중학교에서 교장 전홍표의 영향을 받아 항일사상을 품고, 후에 표충사에서 독학을 하며 독립운동에 대한 뜻을 확실하게 했다. 중앙학교를 거쳐 중국으로 간 김원봉은 만주의 신흥무관학교에 이르게 된다. 그의 나이 22살, 이곳에서 폭약기술을 배우고 뜻이 맞는 동지를 얻어 자퇴 후 길림으로 가서 의열단을 조직하게 된다.

상해에서의 의열단 활동은 창단 직후부터 대대적인 암살과 폭탄투척으로 시작한다. 임시정부가 이러한 의열단 활동을 비난하자 그는 이회영 등 반 이승만의 북경그룹과 가깝게 지내며 의열단이 무조건 폭력을 일삼는 테러조직이 아니라 명확한 이념과 목표를 가진 독립운동단체인 것을 알리기 위해 신채호에게 의열단의 혁명선언의 기초를 부탁하는데 이렇게 나온 것이 1923년 1월에 발표한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다.

이 시기 그의 모습은 '아리랑', 김산에 의해 생생하게 묘사된다. '다른 사람들은 잘 어울려 다녔지만 약산은 언제나 조용하였고 육체운동에도 참가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거의 말이 없었으며 도서관에서 독서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약산은 대단히 미남이고 로맨틱한 용모를 가져 그를 좋아했지만 그는 아가씨들을 멀리하였다.'

1925년, 중국의 반제국주의운동과 민족해방의 진원지인 광동에 혁명가들이 몰려오고 의열단원과 김원봉도 중국 국민정부의 북벌과 혁명운동에 동참한다. 중국이 통일되면 그 열기로 조선도 독립될 것이라 믿었지만 27년 장개석의 반혁명으로 물거품이 된다. 하지만 그가 이 때 보고 느낀 중국의 삼민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민족주의, 국제주의 등 온갖 사상의 시험장이 된 혁명무대, 특히 중국 내의 국공합작은 이후 그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보수 민족주의자들이 1920년대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새로운 세대의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민족해방운동 지도자로서 전면에서 나서게 된다.

이 후 의열단의 노선은 북벌운동 참여의 교훈 속에서 국내의 노동대중운동에 관심을 기울여 약산이 레닌주의 정치학교를 만들어 조선공산당 재건에 참여하기도 하나 의열단 전체적으로는 민족주체 민중중심의 노선을 지향한다. 이 때부터는 민족유일당운동 결성에 노력하는 등 자신이 유일한 중심조직이 아니고 전체 혁명운동의 첫 단계로 의열단 성격을 자리매김한 것이다. 밀양에서 망명한 윤세주와의 재회, 여성독립운동가 박차정과의 결혼으로 안정적이고 본격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하는데, 특히 박차정은 34세에 세상을 뜰 때까지 정치간부

학교 여성교관, 조선의용대 여자의용군 복무단장 등으로 활동하며 그에게 아내이자 든든한 동지이기도 했다.

그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민당의 도움을 받아 1932년 조선혁명군 사정치간부학교를 만들어 점차 무장항쟁의 조직을 길러나간다. 1930년대 개인테러 활동은 오히려 무정부주의자나 임시정부 내의 김구의 한인애국단이 주도하고 이봉창, 윤봉길의 의열투쟁은 중국의 물질적, 군사적 지원을 받는 계기가 되는데, 이후 무장독립군 양성은 의열단 단장인 김원봉과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자 한인애국단의 책임자인 김구, 두 갈래로 추진된다.

1935년 7월, 중국 관내 최초의 통일전선정당 민족혁명당(후에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명칭 변경)이 만들어지고 윤세주에 의해 민족혁명당은 사실상 의열단의 강령과 정신을 이어간다. 이때 혁명군 양성을 위해 조선의용대를 발족시키며 김원봉은 조선의용대 대장으로 취임한다. 조선의용대는 대원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공부하던 지식인들로 일본군에 대한 선전공작, 지하공작을 전개하는 수준 높은 군대였다. 그러나 1940년 말 화북으로 대원의 80%가 이동하며 김원봉은 20% 남은 의용군과 함께 하게 된다. 어디에 남을 것이냐의 고민은 박차정의 부상 등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27년 장개석의 쿠데타의 쓰라린 경험으로 전략상 윤세주와 역할 분담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임시정부의 극우화 견제, 당 역량 보존 등의 이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임시정부 내에 들어간 김원봉은 군무부장으로 참여하여 임정의 분위기를 바꾼다. 임정이 중경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근본적으로 혁명단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한인들의 동향회라는 야유, 심지어는 양반과 상놈을 따지는 봉건적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여기에 40대인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젊은 피 수혈은 임정을 활기있게 만들고 군무부장으로써 광복군을 지휘하지만 임정 내의 군사적 역할은 제한될 수 밖에 없었고, 망명정부의 국제적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도 전에 해방을 맞이한다.

임시정부는 개인자격이라는 미군정의 각서를 받고 11월 중국을 출발한다. 그는 2차로 12월에 보내준 비행기에 뒤늦게 귀국하게 된다. 그가 꿈에도 그리던 조국 땅의 첫 발에 목격한 것은 험벗고 굶주린 동포들의 참상이었고, 이에 충격을 받게 된다.

남한에서의 환영은 여기까지였다. 일제의 끈질긴 추적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지 않았던 그가 1947년 친일과 경찰 노덕술에 의해 장택상에게 끌려와 철창에 갇혀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그는 3일 낮과 밤을 울었다고 한다. 의열단장, 조선민족혁명당 당수, 임정의 2인자, 조선민전위원장 약산을 남한정부는 거부하였던 것이다. 분단논리가 지배하는 이승만세력과 미국에 민중통일정부의 꿈은 좌절되고, 1948년 김구와 오른 남북협상이 좌절되자 북한에 머무를 것을 결심한다.

북한에서의 검열상 등을 지내다 1958년 말 실각 후 그의 소식은 알 수 없으나, 최근 밝혀진 혁명열사 명단에 없는 것으로 보아 북한정치공간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의 행적에 자살설, 총살설 등이 있지만 김일성에 의한 숙청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의 생애를 쫓 정리해보며, 착잡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자발적인 월북자라는 이유로 급기시된 임시정부의 2인자, 열렬한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 단지 북으로 갔다는 이유로만 그를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라고 부르기엔 아폐가 있어 보인다. 1920년 동아일보 사설에 기고된 그의 글을 보자.

'우리 운동선상에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두가지 풍조가 나뉘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서 근일에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관계에 대하여 토론한 문자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간단히 말하면, 우리 조선 사람의 처지로는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연락과 합동이 있어야 한다기 보다는 민족운동이 곧 사회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선 민중의 생존번영 자유평등을 위하여 분토노력한다는 그 실질문제에서 두가지 운동이 다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하나는 형식이 종족의 투쟁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계급의 투쟁으로 나타난다 하여 두가지 운동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겠지요. (중략) . . . 즉, 이 두가지가 조선에서는 합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면으로만 본 그의 일생이고 생각이었지만 그를 어떠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가두기 이전에 그가 이뤄 낸 독립운동의 업적,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먼저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굳이 가둬보자면 민족주의(?) 썸 되겠지만 역시나, 어폐가 있어 보인다. 하나의 사상을 주장하기 이전에 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했던 그의 노력이 지금이라도 다시 평가되길 바라본다.